

2011년 9월 5일 보낸 편지입니다.(3,661조회)

평생 갈 사람  
一生行く人

멘토뿐 아니라  
メンターだけではなく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ただ一緒にいることだけでもいい

그런 친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そんな友人を作ることも重要だ

굳이 어떤 가르침을 주지 않아도 좋다.  
あえてある教えを与えなくてもよい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ただ、どんな状況でも私の側になってくれることができる

친구가 있으면 든든하다. 멘토와 멘티가 되어  
友達がいれば頼もしい。メンターとメンティーになって

서로를 끌어주는 관계로 살아가야 한다.  
お互い引き合う関係で生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

서로를 끌어주고 때론 서로 기대면서  
お互いを引き合って、たまにはお互い頼りながら

평생 동안 서로에게 든든한 백이  
一生のあいだお互いに頼もしい後ろ盾に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なってくれたらよいだろう

- 이주형의《평생 갈 내 사람을 남겨라》중에서 -  
- イ・ジューヒョンの〈一生行く私の人を残しなさい〉より -

\* 우리 모두는 살면서  
\* 我々みな生きていながら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とてもたくさんの人々と会います

처음 만나 평생을 함께 할 것 같아도  
はじめてあって、一生を共にするようなことも

언제가는 헤어지며 각자의 길을 가곤 합니다.  
いつの日かわかれて、各自の道をいったりもします

늘 '내 편'이 되어 평생의 멘토와 멘티로  
いつも'私の側'になって一生のメンターとメンティーとして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ともに歩いていく人がいること

그보다 더 큰 백이 없습니다.  
これよりさらに大きな後ろ盾はありません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世の中が怖くありません

(Mentor)

仕事や人生に効果的なアドバイスをしてくれる相談者のこと  
トロイ戦争に出てくる名教師の名前に由来

굳이

1. [부사] 固く; 頑固に。
2. [부사] 強いて; 敢えて; 無理に。

멘티mentee

[名]師(mentor)から教えを受けている人.

백<sup>2</sup>

1. [부사] 樹木などが密生しているさま:ぎっしり; こんもり。

남기다

1. [타동사] 남다の使役。
2. [타동사] 残す; 余す。

2011년 9월 6일 보낸 편지입니다.(2,860조회)

완전한 용서  
完全な許し

어떤 일이 발생하면  
あることが起こったら

처음 나오는 반응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はじめに出る反応は、自分の弁護のために

'그렇지만'이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려 했다.  
'そうだが'という言葉がまず出そうとした

대신 나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라는  
代わりに私は「私が間違っていました。懺悔します」という

말을 먼저 배워야 했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言葉をまず学ば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そうしてすべてのこと

용서되고 잊혀졌다. 나는 완전한 용서를  
許して、忘れるようになった。私は完全な許しを

경험하게 되었다.  
経験するようになった

- 마르틴 배첼러의《출가 10년 나를 낮추다》중에서 -  
- マルティン・バッチェラーの「出家10年私を落とす」より -

\* 완전한 용서의  
\* 完全な許しの

첫걸음은 나를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第一歩は私をまず許すことです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条件はありません。理由も必要ありません

'나를 용서하지 못한 나'를 무조건 용서하고  
'私を許せない私'を無条件で許して

그 다음, 이 시간 이전의 모든 것, 모든 사람을  
その次に、この時間以前のすべてのこと、すべての人を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되돌아 보지  
許すことです。そして、二度と振り返らない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살려냅니다.  
のです。許しは私を生かします

옆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隣の人を生かして、世の中も生かします

튀어-나오다

1. [자동사] 飛び出す; 飛び出る。
2. [자동사] 突き出る。

참회 [懺悔]

1. [명사·하다형 타동사] 懺悔。
  2. [명사·하다형 타동사] 悔いて心をあらためること。
- 낮추다
1. [타동사] 低くする; 下げる; 引き下げる; 落とす。
  2. [타동사] ぞんざいにする。

마르틴 배첼러(Martine Batchelor)

2011년 9월 7일 보낸 편지입니다.(2,858조화)

나 혼자만의 공간  
私一人だけの空間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하고  
“私だけの空間を準備して

일정한 요일과 시간을 정해 홀로 있어 보라.  
決まった曜日と時間を決めて一人きりでいてみなさい

그저 당신의 본질을 탐구하고 미래에 어떤 모습을  
ただ、君の本質を探求して未来にどんな姿を

갖게 될지 그려볼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하다.  
持つようになるのか、描くことができる空間なら十分だ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はじめは何も起こらないようだが

하지만 성스러운 공간을 만들어 활용하다  
神聖な空間を作って活用して

보면 언젠가 놀라운 일이  
みればいつか驚くことが

일어날 것이다.”  
おきるだろう”

- 사라 밴 브레스낙의《혼자 사는 즐거움》중에서 -  
- サラ・バン・ブラナックの<一人生きる楽しさ>より -

\* '나 혼자만의 공간'.  
\* '私一人だけの空間'

그런 공간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そんな空間が私にもあります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절대고독의 순간,  
誰も変わることができない絶対孤独の瞬間

내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명상과 기도로  
私が私を慰労して激励しながら瞑想と祈りで

힘을 얻는 성소(聖所)와도 같은 저만의 공간.  
力を得る聖所のような私だけの空間

그런 공간이 웅달샘에 있음에 감사하며  
そんな空間が小さな泉にあることに感謝して

언젠가 일어날 놀라운 모습을  
いつかたちあがる、驚くべき姿を

미소로 그려봅니다.  
微笑で描いてみます

요일 [曜日]

1. [명사] 曜日。

일정 [一定]

1. [명사·하다형 형용사] 一定; 一つに定まって動かないこと。

정: [正]

1. [명사] 正。

2. [명사] 正しいこと; まちがっていないこと。

홀로

1. [부사] 独り; 独りで; 単独で; 孤立して。

그리다1

1. [타동사] 描く。

2. [타동사] 描く。

성: -스럽다 [聖—]

1. [형용사·부 불규칙 활용] 高潔で嚴肅である; 神聖である; 神々しい。

Sarah Ban Breathnach

2011년 9월 8일 보낸 편지입니다.(4,056조회)

안부 인사  
安否のあいさつ

고요한 묘원을  
静かな墓苑を

홀로 산책하다 보면 깨닫게 된다.  
一人で散策してみれば気づくようになる

사랑하는 것들에게 매일 안부를 전하는 삶을  
愛することに毎日安否を伝える人生を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生き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そうしなければ

작별인사를 건넬 시간조차 없이  
惜別のあいさつをかける時間さえなく

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人生の最後の日を迎えるように

된다는 것을.  
なることを

- 사라 밴 브레스낙의《혼자 사는 즐거움》중에서 -  
- サラ・バン・ブラナックの<一人生きる楽しさ>より -

\* 사랑하는 사람의 안부가 끊기면  
\* 愛する人の安否が絶えれば

마음은 안절부절,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心は、そわそわ、手につくものがありません

모든 촉각이 바람결에 실린 그 사람의 발걸음 소리에  
すべての触覚が風の力にのせた、その人の足音に

머물러 있습니다. 저도 아침편지를 쓰고 느낌 한마디에  
とどまっています。私も朝の手紙をかいて、感じる一言に

누군가의 이름이 안 보이면, 수없이 클릭을 반복하며  
どなたかの名前がみえないなら、たくさんクリックを繰り返し

그의 이름을 찾곤 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  
彼の名前をさがしたりします。便りのないのがよい便り?

아닙니다.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ちがいます。人が死ぬことです。

오늘 하루도 너무 궁금합니다.  
今日一日もとても気になります。

소식 좀 전하며 사세요.  
消息をちょっと伝えながら生きてください。

안부 (出典:Doosan)

安否

고요하다[コヨハダ](出典:ポケットプログレッシブ韓日・日韓辞典)

[形容詞](ひっそりと) 静かだ, 穏やかだ

건네다(←건넬)[コンネダ](出典:ポケットプログレッシブ韓日・日韓辞典)

[他動詞]

1.(声・言葉を) かける

2. 渡す

끊기다

1. [자동사] 끊다의受動: 切れる; 切られる; 絶たれる; 絶やされる; 絶える。

いても立ってもいられない → いる

안절부절못하다.

촉각 [觸角]

1. [명사] 『동물』觸角。

바람-결

1. [명사] 風のたより; 風聞。

2. [명사] 風の力; 風の勢い。

실리다<sup>2</sup>

1. [타동사] 실다의使役: 乗せる; 積む。

머무르다

1. [자동사·르 불규칙 활용] 止まる; 停止する; 停泊する。

2. [자동사·르 불규칙 활용] とどまる; 居残る。

사람 죽이다

1. [관용구] とんでもないことをしてかして人を窮地に追い込む。

2. [관용구] こっけいな笑い話やまねをして, 人を笑いこぼさせる。

(Sarah Ban Breathnach)



2011년 9월 9일 보낸 편지입니다.(3,147조회)

남몰래 주는 일  
人知れず与えること

다른 사람에게  
他の人に

은혜를 베푸는 일은  
恩恵を施すことは

그것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それを受ける人ではなく、むしろ

스스로에게 무한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한다.  
自らに、無限の喜びと価値を感じさせる

더욱이 생색을 내지 않고, 남몰래, 본인 자신도  
その上、恩を着せず、人知れず、本人自身も

모르게 남에게 주는 일은 받는 사람보다  
わからないうちに、他人に与えることは受けた人より

주는 사람에게 더 큰 기쁨을  
与える人にさらに大きな喜びを

안겨준다.  
抱かせてくれる

- 윤준호의《변화하는 시대의 지혜》중에서 -  
- ユン・ジュノの〈変化する時代の知恵〉より -

\* 남몰래 주는 일,  
\* 人知れず与えること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決して簡単なことではありません

아무런 조건 없이 준다는 뜻입니다.  
何も条件なく与えるという意味です

그 어떤 계산이나, 뒤에 돌아올 보상 따위를  
そのどんな計算や、後でかえってくる効果の類を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선의와 자비와 측은지심으로  
考えず、ひたすら善意と慈悲と惻隱の情で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 고결한 뜻에 하늘이 감동하고  
助けるという意味です。その高潔な意味に神様が感動して

하늘이 움직입니다. 남몰래 주는 일은 사람이 하고  
神様が動きます。人知れず与えることは人がして

남몰래 도와주는 것은 하늘이 합니다.  
人知れず助けることは、神様がします

남-몰래

1. [부사] ひそかに; 人知れず。

베풀다

1. [타동사·ㄹ 불규칙 활용] 他の人々のために何かを提供すること。

2. [타동사·ㄹ 불규칙 활용] 設ける; 催す; 張る。

보람

1. [명사] しるし; 甲斐; 値打ち; 効果。

2. [명사] 目印; しるし。

더욱-이

1. [부사] なお; その上。

생색 [生色]

1. [명사] 面目が立つこと; 手柄顔; 得意顔。

오로지

1. [부사] ひたすら; もっぱら; 一途に; ただ; ひとえに。

선의 [善意]

1. [명사] 善意。

2. [명사] よい心; 善良な心。 측은지-심 [惻隱之心]

1. [명사] 惻隱の情。

2011년 9월 10일 보낸 편지입니다.(666조회)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석해령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ソク・ヘリョ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사랑이 그리운 계절  
愛が懐かしい季節

'무엇 때문에  
'どうして

난 사랑하지 못하는가'고 생각하지 마라.  
私はいふことができないのか'と思うな

그건 당신이 사랑을 '누구나, 언제나 하는  
それは君が愛を'誰でも、いつもする

흔한 것' 가운데 하나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ありふれたこと'の中のひとつと信じているからだ

사랑은 흔한 것도 의무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다.  
愛はありふれたことも、義務でもない、まさに君自身だ

사랑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잃어온 것보다  
愛しなさい。そうしないなら今までなくしてきたことよりも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사랑하고 있을 때만  
さらに多くのことをなくすようになるだろう。愛しているときだけ

당신은 비로소 당신이며, 아름다운 사람이다.  
君はようやく君であり、美しい人だ

- 이병률의《끌림》중에서 -  
- イ・ビョンリョルの〈魅力〉より -

\*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일이  
\* 愛して、愛されること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라 생각했는데,  
世の中で一番たやすいことだとおもったが

서른을 앞둔 지금 느끼는 것은 사랑이 가장 쉽고도  
30代を迎えた今感じることは、愛が一番簡単で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그 흔한 사랑,  
一番難しいことだ'という気がします。'そのありふれた愛

왜 나는 못하는 거야?'라는 다소 억울한 생각은  
なぜ私はできないのか?'と多少悔しい気持ちは

이제 버리려고 합니다. 사랑이 그리운 계절,  
もう捨てようと思います。愛が懐かしい季節

20110910.txt

가을이 왔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가을...  
秋が来ました。愛したい秋

지금, 사랑하세요.  
今、愛してください

흔-하다

1. [형용사·여 불규칙활용] 有りふれている。
2. [형용사·여 불규칙활용] 珍しくない; 平凡である。